

계란유통 실태와 품질유지 방안



이 득 용

- (주)에그원 영업부장
- 계란사랑모임 총무

새로운 천년에 대한 설래임과 희망으로 요란스럽게 시작한 2000년이 벌써 3개월째 지나가고 있다.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도 이제는 차분해지고 각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만이 가득하다. 정

부는 IMF관리체제의 졸업을 공식 선언하였고 또 몇 년 내에 국민소득 만삼천불의 시대가 온다고 홍보한다. 사회는 인터넷 시대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몸부림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채란업과 계란 유통시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정부의 생산시설 지원 정책으로 사육규모가 증가하였고 IMF초기의 일시적인 고난가 영향으로 인한 무계획적인 사육수수의 증가 등은 사상 초유의 생산량 과다를 초래하였다.

또한 외식문화의 발달과 학교급식의 확대와 같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계란의 소비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비 이하의 농가 출고가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뚜렷한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수입계란(Shell egg)은 국내 생산원가의 절반 가격도 안되는 30원대면 부두에 도착된다고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

생산자들은 자구 노력에 힘을 합치기는커녕 서로 '너' 먼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제값을 쳐주지 않는 상인들 원망만 하고 있다. 상인들은 판매가를 높이기 보다 과당경쟁으로 입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농가에 지급할 계란가격을 계속 낮추려고 한다. 생산농가의 경영악화에는 관심 없이 '나'만 있을 뿐이다.

양계협회나 협동조합에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나 소비촉진 운동도 간헐적으로 실시하지만 생산자나 상인 어느 누구도 선뜻 협조하지 않는 현실은 허공을 향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움직인다. 현재의 위기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그 원인이 있다. 당연히 공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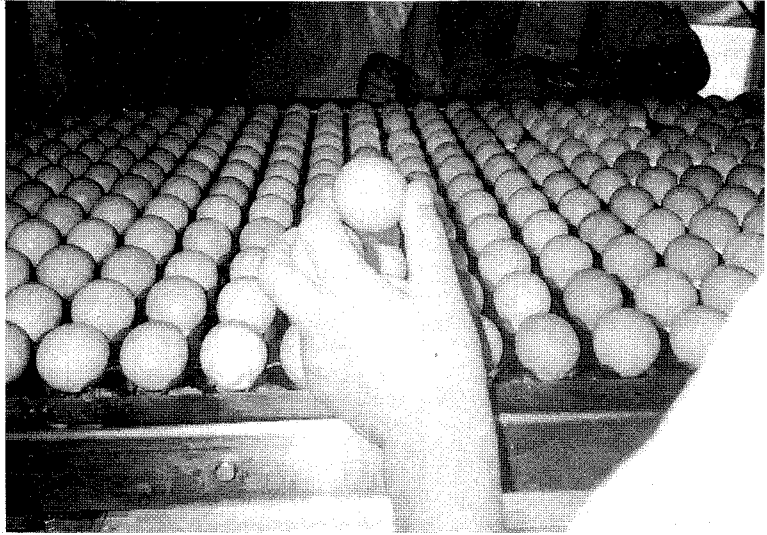
하지만 생산과잉만을 탓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또 다른 방법은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과정을 정립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능성계란의 개발을 통하여 계란의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저급계란이나 수입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공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계란유통의 실태를 살펴보고 품질유지방안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여 저년가로 위기에 처해 있는 양계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국내 계란유통의 현실

계란을 소비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각각의 조건에 맞는 유통체계를 필요로 한다. 계란가게 또는 대형 식품매장이나 슈퍼마켓을 통한 일반 소비자 판매, 대규모 급식을 위한 식자재 공급, 군부대 및 조달자재 납품 그리고 식품공장의 가공용 납품 등 공급조건에



따라 역할을 약간씩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식자재나 공장 등의 납품은 그 과정뿐 아니라 품질규격도 단순하기 때문에 기술을 생략하고 일반소비자를 위한 유통과정 및 품질 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계란 유통주체의 변화

과거의 계란유통은 극소량을 제외하고는 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 유통단계도 농가-도매상인-중간상인-소매상인 또는 유통회사-소비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비용 구조였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농가의 등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유통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량생산에 따른 자체 판매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생산농가가 자기브랜드를 개발하여 직접 유통을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저가구매를 원하는 대형 할인점 위주로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몇 개 농장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유통참여를 준비중이거나 검토중인 농가들을 감

안하면 향후 더욱 많은 생산농가가 유통시장에 합류할 것이다. 또한 일부 생산자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를 대행토록 하는 간접참여 방식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농가의 유통업 진출에 따른 유통주체의 변화 등은 상인과 생산자, 생산자와 생산자간의 경쟁으로 거래질서의 혼란과 가격하락 등 과당경쟁을 초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협부담을 안고 있다.

2) 거래조건 및 납품가격

계란의 매입조건은 수수료, 특정매입 그리고 직매입 등으로 구분되며 거의 대부분은 직매입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부대조건으로는 입점비 지급, 판매시설 지원,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인원 지원 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업체에 따라 납품금액의 0~8%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입조건은 납품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유통업 진출에 의한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는 조절기능이 수반되어야 한다.

납품가격은 시세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방법과 생산원가에 마진을 더하여 고정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변동가격제는 일반란에 적용하며 양계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세정보를 기준으로 포장비, 유통비 및 마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고정가격제는 특수란(또는 영양란)에 적용하며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게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납품가격은 대형 유통사(특히 할인점)간의 판매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또한 납품업자간의 지나친 경

쟁과 이를 교묘히 이용한 가격인하 및 세일행사 요구로 납품가가 산지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일부 매장에서 계란 1판(30입)의 판매가가 900원에도 미치지 못할 때 과연 납품가는 얼마란 말인가.

특히 생산량 과다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납품업자의 가격고수 의지가 꺾인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나친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가격을 지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3) 유통제도 현황 및 문제점

계란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이다. 따라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과정을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정형화된 유통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결정된 바 없다. 세란을 하는 농장과 하지 않는 농장, 저온 또는 냉장 보관되는 계란과 실온 보관되는 계란, 평대에 진열하는 매장과 냉장진열대를 사용하는 매장 등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일관된 제도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척한 계란과 세척하지 않은 일반계란이 뒤섞여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은 품질유지에 커다란 구멍이 아닐 수 없다.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은 30일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의 계란제품이 산란일이나 저장조건 등과는 무관하게 포장작업일에 맞추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농가에서 적체되었거나 저온창고에서 몇 달이 경과했어도 유통기한을 30일로 표시하여 유통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선도가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이물질이 검출되고 심하면 흔히 '먹통'으로 불리우는 변질된 계란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유통기한 설정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유통업자 스스로도 품질조건에 맞는 유통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

계란은 살아있는 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이 품질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급이하는 사료와 닭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품질을 안정시키고 더욱 영양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품질차별화 없는 수많은 브랜드와 이 농장 저 농장에서 수거하여 동일한 브랜드로 포장 판매하는 현실 등은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많은 영양강화란 또는 기능성계란의 품질에 과연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미미한 영양소의 보강이나 인공색소를 첨가하여 난황의 색도를 높인 계란을 영양란이라고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가 계란에 잔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닭에서 생산되는 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 전이(난계대)되어 이로 인한 식중독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산된 계란의 품질검사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이 계란에 대한 영양함량과 위생상태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고 검사기준도 분명하지 않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2. 품질유지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소견

1) 품질차별화만이 살길

계란은 그 자체가 완전한 식품이다. 따라서 양계장이니까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안일한 개념을 버려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식품공장에서의 위생관리와 일반식품에 준하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농장의 생산단계에서 부터 과감하게 품질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생산농가 설명제를 도입하고 산란일을 표기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계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품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용을 확보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크기에 따른 분류 외에 영양가치, 신선도 및 위생상태 등 품질규격을 추가하여 분류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엄격하고 세분화된 품질규격을 제정하고 또 새로운 품질을 개발하여 이에 준하는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기호나 사용용도에 맞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생산이나 유통과정에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였거나 닭에 질병이 발생을 경우 이때 생산된 계란은 별도 분리하여

처리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식란과 공업용 가공란 등 사용용도에 따른 품질차별화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계란의 품질관리제도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산란계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품질관리제도의 검토와 제도정착을 위한 법규 재정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익과 직결되는 생산농가나 유통상인에게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품질관리를 위한 유통구조를 갖추어야

계란의 유통체계 정립은 품질관리와 직결된다.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이 관리되는 유통과정을 일관성 있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저온 또는 냉장보관하였거나 세척을 한 계란은 운반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전과정을 콜드 체인화 하는 등 차별화된 유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생산자가 판매매장 혹은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유통기한을 단축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농가는 고온다습한 하절기 또는 비수기에 생산되는 계란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창고 등의 저장시설을 갖추어 신선도 관리와 수급조절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맺음말

계란은 어느 식품보다도 영양가가 뛰어난 완전식품이다. 이러한 계란을 생산하고 취급하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가

과 품질을 천시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산란계 산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운다'는 핑계를 방패삼아 많은 문제들을 감추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양계인 스스로 솔직하게 문제를 공개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산업과 시장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품질관리와 신제품을 개발하고 수입계란이 넘볼 수 없는 위생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농장이 생산능력과 재고현황 등을 조절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된 정보체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품질과 유통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산농가 및 유통상인은 퇴출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규격관리를 통하여 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규모의 생산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품질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처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양계협회와 협동조합뿐 아니라 모든 관련단체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적립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힘을 집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려다 전부를 잃어버리는 생즉필사(生卽必死)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양계인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나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즉필생(死卽必生)의 각오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다면 우리의 산란계 산업에도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 **양계**